

생명사랑 ·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메리놀병원

글/사진 · 박서현 기자(메리놀병원)

부산은 항구 도시이다. 여느 항구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듯 부산 사람들은 투박하며, 거칠면서도 정이 많고 “화끈”한 성정 속에 따뜻함을 담고 있다. 메리놀병원은 이처럼 따뜻한 부산 사람들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며 호흡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인 중구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메리놀병원 신장이식팀은 1990년 첫 신장 이식술을 실시한 이후 400례의 수술을 기록하였고, 수술 후 이식 신장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이 국내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메리놀병원의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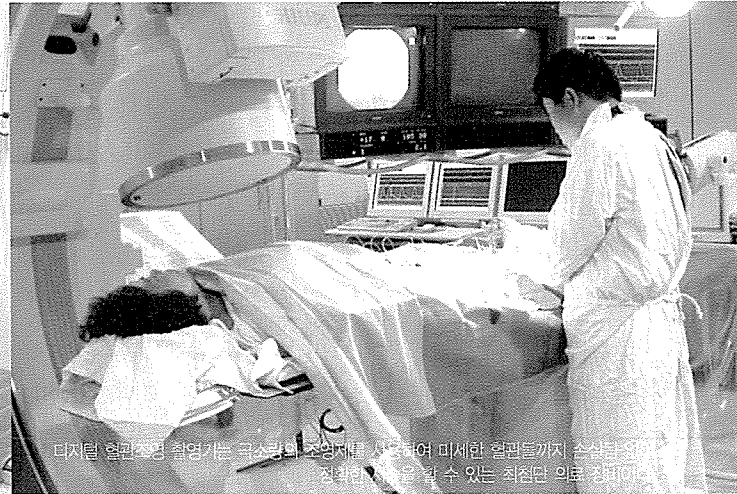
메리놀병원은 해방 이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혼란기였던 1950년 4월 15일 진료소를 개설하여 무료진료를 시작하였고, 그 해 5월 1일 정식으로 의원개설 허가를 받아 '메리놀의원'으로 명명하고 부산 지역 최초의 가톨릭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의 참상은 병원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피난민들과 빈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메리놀수녀회 수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구호에 헌신하였다. 그 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메리놀수녀회에서는 병원의 운영권을 부산교구로 자진 헌납하기로 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부산교구에서 병

한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미국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 시술하는 등 선진의료기술과 첨단장비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998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센터에서 '국소적으로 진행된 암에서의 방사선 치료와 국소온열 요법'이라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IAEA에 의해 방사선·온열 병합 치료를 위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메리놀병원의 신장이식팀은 국내 최고의 성적을 갖고 있다. 올 11월이면 부산, 경남 지역 최초 신장이식 수술 400례를 시술하게 된다. 신장이식팀의 성적은 국제학회에서도 보고 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술 성적은 1년 및 5년 이식



최근 도입한 다중 나선형 컴퓨터 단층 촬영기는 촬영 부위를 빠른 속도와 정밀도로 이미징하여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디지털 혈관조영 촬영기는 국소적인 조영제량 사용으로 미세한 혈관들까지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 장비이다.

원 운영권을 이양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메리놀병원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메리놀수녀회에서 심어놓은 아름다운 의료 봉사의 정신을 간직하고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전문센터 중심의 진료와 차별화된 특수클리닉 운영 및 최첨단 의료시설과 의료 봉사 등으로 생명사랑·인간존중의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별화된 선진 의료

2차 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리놀병원은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1984년 암 센터를 설립하였다. 암 센터를 통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코발트 전신 심부암 치료기와 코발트 강내 치료기를 도입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률에 대비하여 왔다. 또한 1996년 선형가속기를 이용

신장생존율이 97.7%와 90.4%로 나타났고, 1년 및 5년 환자 생존율도 98.3%와 94.7%로 국내 어느 병원보다도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신장내과 공진민 과장은 코넬의대 신장이식팀과 공동 연구하여 신장이식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BK 바이러스 신장병'에 대한 새로운 진단 방법을 이식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트랜스플란테이션(Transplantation)에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메리놀병원 안과의 백내장굴절 수술팀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국 백내장굴절학회의 필름페스티벌 특수수술 분야에서 한국 최초로 1위에 입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백내장굴절 수술팀이 발표한 'Marfans 증후군에서 발생한 수정체 이탈구 치료를 위한 수술적 방법'은 현재 까지 많은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연구 분야이다.

또한 김완수 안과 과장은 최근 '합병성 백내장 수술 중 가장 처치 곤란한 10례'의 연자로 초청되어 세계적 안과 의사 1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정보화 실현

메리놀병원은 부산, 경남 지역 최초로 MRI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신 다중 나선형컴퓨터단층촬영기(CT)를 통해 1회전 0.4초 주사로 16슬라이스의 영상으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의 검사시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CT는 기존의 CT가 단면 영상만을 보여주었지만, MRI로만 볼 수 있었던 역동적인 3단면 입체영상과 혈관 입체영상 등 다방면의 화상도 표시가 가능한 최첨단 의료장비이다. 또한 체외충격파쇄석기를 비롯하여 광학안구단층촬영기, 디지털 심혈관조영촬영기, 심장전기생리검사기, 아코드레이저치료기, 인공지능엑시머레이저 등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의료처방전달시스템(OCS)을 자체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편의와 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해 필름 없이 의료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의학영상정보전달시스템(Full PACS)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자체개발한 의료처방전달시스템은 지역사회 및 의료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영혁신 운동

메리놀병원에서는 IMF로 인해 국가 부도라는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를 맞아 경영혁신과 의식개혁을 위한 '뉴 메리놀 2000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의료계의 내적, 외적 환경의 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병원 자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친절운동, 경영개선운동, 환경개선운동, 봉사운동의 네 가지 세부운동을 전개하여 고객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만족 및 경영 만족과 지역사회에 봉사라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경영위기를 맞아 2003년부터 '희망 201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혁신 운동과 의식개혁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 직원에게는 비전과 희망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고객에게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희망 2010 운동'은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머슴 의식 바꾸기와 물리적 근무환경 바꾸기, 제도와 시스템 바꾸기를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철학으로 무장하여 고객의 피드백을 얻고, 평가한 후 실천에 옮김으로써 고객서비스와 고객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봉사에의 헌신

성서는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하느님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끊임없는 이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는 분이시며, 특히 가난하고 병든 약자들을 위한 구원의 하느님으로 성서 사기들은 기록하고 있다.

메리놀병원 역시 사회봉사로부터 시작했다. 메리놀수녀회 수녀들은 의료의 불모지였던 1950년대 이 땅의 수많은 빈자와 병자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헌신적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메리놀병원은 그 아름다운 봉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활발한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마다 수재민의 이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무료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의 메아리 운동과 사랑의 동전함을 운영하여 지역 내 무의탁 독거노인돕기와 결식이동돕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매년 2월11일에는 '세계 병자의 날'을 맞아 기념 미시를 봉헌하고, 세계 병자의 날의 제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또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위문공연 등 환자와 호흡을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는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병상생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도 시화전, 사진전, 음악회, 불우환자돕기 바자회,

친절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기입원 환자와 직원들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문 봉사자 양성을 위해 1992년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에는 지역 내 최초로 자원봉사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메리놀병원에서 자원봉사자 학교를 설립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 학교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이들이 병원특성에 알맞고 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강의와 실습

을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43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양성되어 161명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메리놀병원은 대희년인 2000년에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메리놀병원의 개원 50년은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시혜로서의 큰 발자취를 남긴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창출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특수화, 차별화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진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전문의의 해외연수 활성화와 함께 직원교육의 활성화, 첨단장비의 도입뿐만 아니라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 재단차원에서 새로 신축 중인 '부산성모병원' 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50년 넘은 시설의 낙후화를 보완하여 병실과 진료공간의 리모델링을 추진, 병원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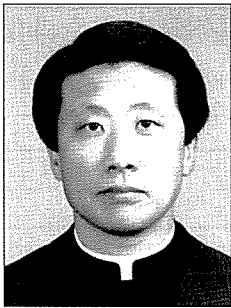
메리놀병원은 하용달 병원장 신부와 배국환 의무원장 등 전 임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50년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고 있다. 🐦



1. 한국 전쟁 직후 메리놀수녀회 수녀들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었다.
2. '세계 병자의 날' 을 맞아 입원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는 모습.
3. 어버이날을 맞아 간호사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쾌유를 기원하였다.

인터뷰

Interview



하 용 달(안드레아) 신부
메리놀병원 원장

1. 병원의 장점을 소개한다면?

메리놀병원은 1950년 개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명 사랑·인간존중의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지역사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확산시키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초창기 메리놀수녀회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의료 봉사는 지금까지도 메리놀병원의 아름다운 이미지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봉사의 이미지를 더욱 잘 보존하여 최고, 최선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사랑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는?

메리놀병원은 50여 년 동안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부산·경남 지역 의료의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하여 왔습니다. 특히 메리놀수녀회 수녀님들은 한국전쟁 이후 의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의료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전통을 되살려 무의촌진료와 무료건강교실, 무의탁독거노인돌봄과 결식아동지원 등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목활동과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정신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 등 다양한 종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리놀병원은 공관 복음서가 증언하듯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받던 병자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치유사도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금 이 곳'에서 재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3. 병원이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은 무엇인지?

의료서비스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는 '연민(憐憫)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통해 그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시는 마음이야말로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창출시키는 중요한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민의 마음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선진의료기술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치유의 은혜는 우리의 몫

아니라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몫이기에 우리는 치유로 가는 과정까지 연민과 진심(眞心)으로 최선을 다해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최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이 함께 하는 서비스야말로 가톨릭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정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의료환경에 대비한 특별한 경영개선책이 있다면?

메리놀병원은 1998년 '뉴 메리놀 2000 운동'을 통해 경영혁신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에는 새로운 경영환경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희망 2010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보다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의료계의 위기적 환경 앞에서 희망을 일구어가기 위해 전 직원들이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되돌아보고, 그 이념을 바로 '지금 이 곳'에서 울곧게 실천하기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노력할 때 희망은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직원들의 의식개혁 운동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5. 최고경영자로서의 다짐은?

메리놀병원은 대희년인 2000년에 개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5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일구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외부적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번영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에서 병자들에게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참사랑을 베풀고,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높이 받드는 아름다운 생각과 철학이 함께 한다면 의료계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루가 18, 42)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연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대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